
칠레 2019: 피노체트의 유령을 탄핵하다

우석균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

핵심어: 30페소 혁명, 회피하라, 칠레가 깨어났다, 90체제, 개헌, 칠레 모델의 탄핵

2019년 10월 칠레에서는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해 역사상 최대 규모로 확산되었다. 칠레 사회에 만연된 소득 양극화에 대한 불만이 대분출된 것이다. 흔히 ‘불편함’으로 지칭되어 온 이 불만은 1990년대 후반에 이미 포착되었고, 적어도 2011년 학생시위 때부터는 주기적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칠레 정부도, 또 엘리트 집단도 소위 칠레 모델, 즉 신자유주의 모델의 ‘성공’에 취해 이를 도외시켰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의 요구에 굴복하여 전면적인 개헌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올해 10월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개헌은 소득 양극화는 물론, 이에 따른 각종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칠레 국민의 각성이 피네라 정부, 칠레 정치권 전체, 민주화와 함께 가동된 90체제를 넘어 칠레 모델 자체를 탄핵했다는 의미를 띠고 있다. 현재 헌법은 수십 차례의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피노체트 시대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62층 빌딩의 명과 암

2019년 초여름 칠레 산티아고를 며칠 방문했다. 1992년 말부터 1994년 초까지 15개월 정도 유학 생활을 한 곳이지만, 이제는 다소 낯선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다 싶었다. 10여 년 만의 방문인데다가 전언이나 뉴스를 통해 산티아고가 몰라보게 변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없던 고속화 도로를 타고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것부터 변화를 실감하게 해주었다. 그란 토레 산티아고가 차창 밖 풍경을 압도했다. 백화점, 호텔, 사무용 공간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건물인 코스타네라 센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높이 300미터의 62층 빌딩이다. 택시 기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다. 젊은 날 한 시절 살던 곳의 발전상을 접하고 필자도 기쁘지 않을 리 없었다.

그러나 숙소에 짐을 풀고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 그 발전의 이면을 접할 수 있었다. 그저 분식집 수준의 식당에 들어갔을 뿐인데, 마치 강남역 주변 식당에서 먹는 것만큼 비쌌다. 음료수 값에 텃이 더해진 결과였지만 말이다. 고작 며칠을 머물렀을 뿐인데 발전의 명과 암을 그야말로 수시로 체험했다. 가장 놀랐을 때는 버스를 타고 라스콘데스 구를 지날 때였다. 도로는 그대로인데 도로변 풍경은 완전 판판이어서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라스콘데스는 소위 바리오 알토에 속하는 지역이다. ‘바리오 알토’를 직역하면 ‘높은 동네’를 뜻하는데, 산티아고가 팽창하면서 동북쪽의 더 높은 지대가 도시에 편입되면서 이 지역들을 총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상류층 거주지를 상징하는 용어이기도 한다. 라스콘데스를 비롯한 바리오 알토의 상당 지역이 산티아고의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구시가지의 번잡함을 피해 거주지를 옮긴 이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부촌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산티아고관 강남인 썸인데, 다만 빌딩과 고층 아파트는

많이 들어서지 않은 비교적 한적한 주택 지대여서 느낌으로는 성북동이나 평창동을 연상시키던 곳이었다. 그러나 2019년의 라스콘데스 중심 도로를 따라 이동하다 보니 10여 층 높이의 빌딩이 열 블록, 스무 블록 줄지어 서 있었다. 건물 외양도 너무 흡사했고, 유리외벽 건물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놀라운 발전상이지만 곧이어 구도심 풍경, 정확히는 구도심 풍경을 이루고 있는 인간 군상들이 오버랩되었다. 가령, 서울로 치면 오랫동안 명동 같은 위상을 지녔던 아우마다 거리에는 여전히 구두담이들이 많았고, 서울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식사비는 서울 못지않거나 더 비싼데, 서민층 수입은 턱없이 적은 칠레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지표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보니 교통비도 유학 시절에는 한국의 반값이 안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약간 더 비쌌다. 칠레의 불평등이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 싶었다.

귀국 후 몇 달이 지난 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는 뉴스가 날아들었다. 주무대는 산티아고였지만, 거의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을 정도로 나라 전체가 들쭉였다. 발단은 10월 6일을 기해 30페소(약 50원) 인상된 지하철 요금이었다. 다음날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도한 무임승차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려 하자 역을 부수고 불태우는 일들이 발생했다. 10월 18일 밤 상황이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피네라 대통령은 19일 새벽 수도권에 비상사태와 통금을 선포했다. 이와 함께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습책들을 발표했다. 가령 22일을 기해 요금 인상을 철회했고, 같은 날 개혁을 약속하는 ‘새로운 사회적 의제’ 일부를 발표했다. 그와 동시에 다음날을 기해 비상상태와 통금을 거의 모든 주도(州都)로 확대하여 시위를 잠재우려 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였다. 10월 25일에 칠레 역사상 최대 시위가 전국을 휩쓸었다. ‘칠레 최대의 행진’으로 명명된 산티아고 바케다노 광장(보통 이탈리아 광장으로 불림)

시위에만 120만 명 이상이 참여했을 정도였다. 인구 대비로 치면 광화문에 300만 명을 훨씬 웃도는 인파가 모인 형국이었다.

시위가 계속되면서 홍역을 치른 곳 중 하나가 코스타네라 센터 백화점이다. 시위대가 인근에서, 백화점 정문 앞에서, 심지어 내부로 진입해 여러 차례 시위를 벌였다. 12월 3일에는 급기야 “부자들의 나라에 반대하는 조직된 민중.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계산서를 건넨다”라는 문구의 걸개가 백화점 안을 ‘장식’했다. 칠레 발전의 상징이자 자부심인 62층 빌딩이 증오의 표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30페소가 아니라 30년이다

칠레 정부는 지하철 요금 인상이 그렇게 폭발적이고 광범위한 저항을 야기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상액이 30페소였으니 대폭 인상이라 할 정도는 아니었고, 이용 시간대에 따른 ‘세심한’ 할인 정책도 존재하고, 심지어 학생요금은 동결했다. 학생들에 대한 특별 배려는 2006과 2011년 학생시위 때의 악몽 때문이었다. 두 차례 모두 교육의 질 향상과 공공성 확대가 이슈였는데, 2006년 시위는 민주화 이후 최대 규모 시위였고, 2011년 시위의 규모는 이를 또 뛰어넘었다. 2006년 시위는 당혹스럽게도 초중고 학생들의 불만이 발단이었는데도 전국 단위의 시위로 확산되었는데(그래서 ‘펑권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흑백이 조화된 교복 색깔이 펑권을 연상시켜서이다), 그들의 요구사항 중에는 학생 무상 교통도 있었다. 그리고 2011년 대학생들이 주도한 학생시위는 피네라 정부가 집권 1기(2010-2014) 때 겪은 악몽이었다. 따라서 피네라 2기 정부(2018-)로서는 학생들의 폭발력과 교통비 이슈의 민감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학생요금을 동결한 것이었다.

교통요금 인상을 결정할 때 이런저런 정책적 ‘고려’를 했기 때문에 당국자들로

서는 아마 거위 깃털 하나 뽑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요금 인상 다음날인 10월 7일 경제부 장관 후안 안드레스 폰텐의 CNN칠레 인터뷰에서 그런 안이한 시각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더 낮은 요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맑게 말하면서 불난 데 기름을 부었다. 소득 차이에 따른 주거지 분리 현상이 고착화되어 출퇴근 소요 시간이 서민의 삶을 짓누르는 현실을 전혀 읽지 못한 발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칠레 정부로서는 서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 실언이라는 점까지는 수궁할 수 있었겠지만, 요금이 동결된 학생들, 즉 깃털 하나 뽑히지 않은 학생들이 오히려 무임승차를 주도하는 현실이 기괴했을 것이다. 오죽하면 대통령 영부인 세실리아 모델이 지인에게 시위를 ‘외계인의 침략’에 비유했을까. 2006년 쾅권혁명 때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 교통 요구가 본인들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부모가 힘들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어버린 것일까? 아니 알았던 적이 있거나 한 것일까?

시위 기간 중 ‘30페소가 아니라 30년이다’(No son treinta pesos, son treinta años)라는 구호가 빈번하게 울려 퍼졌다. 교통요금 30페소 인상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지난 30년에 대한 저항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분노는 피네라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네 차례 집권한 중도좌파 연합 콘세르타시온(Concertación de Partidos por la Democracia,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연합)과 사실상 이 연장선상에서 한 차례 집권한 ‘누에바 마요리아(Nueva Mayoría, 새로운 다수)’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30페소가 아니라 30년이다’는 1990년 민선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동된 90체제에 대한 탄핵인 셈이다.

90체제가 이어지는 동안 칠레 국민의 불만은 진작부터 감지되었다. 소위 ‘불편함’이라 일컫는 정서였다. 콘세르타시온 2기인 1998년에 나온 유엔개발계획 보고서에 여러 차례 등장한 용어이자 개념이다. 가령, “확산된 불편함(그리고 아마 동기를 뚜렷이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막연한 불편함)” 혹은 “확산된 불편함,

그러나 입 다물고 있는 불편함” 등이 존재한다고 적시되어 있다(PNUD 1998, 24, 50). ‘막연한’(confuso) 혹은 ‘입 다물고 있는’(mudo)이라는 수식어들은 가증스럽기만 하다. 불편함은 존재하지만 그 원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칠레가 경제적으로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53.6%에 달하는데, 사람들이 그 이전보다 더 행복한가라는 질문에는 고작 16.4%만 동의하는 등 보고서의 여론조사 결과(PNUD 1998, 53)는 그 불편함의 원인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서민들은 물론이고 중산층도 경제성장의 낙수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이처럼 수치로 입증되는데도, 막연한 불편함이고 사람들이 속을 털어놓지 않아서 원인을 알기 힘든 불편함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꼴이다.

이 불편함은 결국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 시위로 분출되었다. 2001년 교사 파업(이때 초등학교생들이 교사들을 지지하여 등교 거부를 하루 했다), 2006년과 2011년의 학생시위, 2010년 대지진에 따른 피해 양상과 수습 과정에 대한 불만, 2012년 지역 간 경제 불평등에 따른 지방의 불만, 2016년 연금에 대한 불만 등이 모두 대규모 시위로 번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의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가 있을 때까지 칠레 현실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가령,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은 14,670달러였는데, 이듬해 3월 1일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은 301,000페소(약 515,000원)에 불과했다. 물론 이 최저임금 수준은 수치상으로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하면 양호하다. 그러나 칠레가 역내에서 우루과이에 이어 두 번째로 고물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양호한 성적표라고 보기는 힘들다. 2018년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솔 재단(Fundación Sol)의 소득 분석을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430,763페소 이하면 빈곤층으로 분류되는데, 노동인구의 50%가 소득이 40만 페소 이하였다. 미래 전망은 더 어두워서 노동인구의 57%가 가족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릴 가능

성이 별로 없다. 또 70%의 가구가 부채를 짊어지고 있으며, 460만 명(2019년 전체 인구 약 1,910만 명)은 채무 변제 가능성이 막연한 지경에 몰려 있다(Durán y Kremerman 2019, 3). 90체제의 ‘신화적’ 경제성장의 끝은 빛 권하는 사회였던 것이다.

회피하라, 칠레가 깨어났다

칠레 사회학자 알베르토 마요은 2019년 시위 기간에 쏟아진 구호들 중에서 ‘회피하라’(evade)와 ‘칠레가 깨어났다’(Chile despertó)를 가장 의미심장한 것으로 지목했다(Mayol 2019b, location 797). ‘회피하라’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독려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스페인어로 그 원형이 ‘evadir’라는 단어는 무임승차와는 거리가 있고 ‘조세 회피’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이다. 그렇다면 이 단어가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 전직 대통령 리카르도 라고스의 회고록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라고스는 콘세르타시온 3기 정부(2001–2006)를 이끌었고, 사회당과 진보 계열의 군소 정당들의 연합정당인 ‘민주주의를 위한 당’ 출신의 정치인답게 중도좌파 성격의 기독교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이 집권한(1990–2000) 콘세르타시온 1기와 2기 때보다는 불공정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이러한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또 성격상 자화자찬으로 흐르기 마련인 회고록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조세 체계를 제대로 손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자괴감을 토로한다. 기존 체계가 소득 재분배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스 2012, 327). 따라서 ‘회피하라’는 무임승차 독려를 넘어 가진 자들이나 못 가진 자들이나 ‘공평하게’ 부과되는 조세 체계에 대한 비판의식이 깔려 있는 구호이다. 또한 ‘evadir’는 법과 관련해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 ‘탈법적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지난 30년 동안 90체제가 비교적 순탄

하게 지속된 결과 정경유착과 부패가 심해졌다. 고인 물이 썩은 것이다. 피네라의 경우 재산 형성 과정도 의혹의 대상이었고, 집권 1기 때는 칠레 제3의 부호였지만 이제는 칠레 최고 부호이다. 90체제에서 한때 가장 높은 국민 지지를 받은 바첼레트도 아들 부부의 재산 축적이 탈법적인 수단을 통한 것임이 드러났다. 그밖에도 수많은 기업들의 조세 회피와 탈법 행위들이 수없이 도마에 올랐다. 따라서 ‘회피하라’라는 구호에는 국민들에게만 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느냐는 비판의식도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 다른 구호인 ‘칠레가 깨어났다’는 이런 비판의식들에 의거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다. 2019년 10월부터의 일련의 시위에 ‘사회적 폭발’, ‘30페소 혁명’ 이외에도 ‘칠레가 깨어났다’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이들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는 학계에서도 인정되는 분위기이다. 가령, 마을 이외에도, 칠레 안드레스베요대학의 정신분석학자 토마스 로렌스는 사태 직후에 정치철학과 정신분석학 담론에 의거해 사태를 분석한 논문에서 2019년 10월 18일에 칠레가 깨어났다고 주장한다(Lawrence 2019, 89).

그러나 ‘칠레가 깨어났다’는 선언은 사실상 2011년에도 이미 있었다. 예를 들어, 칠레대학 역사학자 세르히오 그레스 토소는 당시의 학생운동이 교육 이슈를 넘어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각계각층의 분노를 결집시키는 것을 보고 칠레 사회운동의 새아침이 밝았다고 선언했다. 1990년 민주화 이후 주적, 즉 군부독재 정권을 종식시켰다는 안도감에 구심점이 사라진 사회운동들이 지리멸렬하는 사이에 신자유주의 모델의 문제점이 심화되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 2011년에 이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졌다고 본 것이다(그레스 토소 2011). 따라서 ‘칠레가 깨어났다’는 구호는 2011년의 학생시위 때 일각에서 공유되기 시작한 사회적 책임감, 즉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서 90체제를 심판하고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2019년에는 마침내 대단히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다는 징후였다.

그렇다면 2018년 피네라는 어떻게 재집권할 수 있었을까? 칠레 최고의 부호로 칠레 경제모델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 옹호하는 입장을 거리낌 없이 표명해 온 인물이 아닌가? 오죽하면 2010년 피네라가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직후 한 언론 기사가 “십장들은 물러나고 주인이 되돌아온다”(Becerra 2010)라는 제목을 뽑았을까? 그렇다면 만연된 불편함을 넘어 이제는 국민이 직접 나서서 90체제를 심판해야 한다는 각성이 2011년에 이미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피네라가 또다시 당선된 일은 미스터리하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의 칠레 정치를 되돌아보면, 정치권에 대한 심판은 진행 중이었다. 이미 2009년 대선 1차 투표에서 우파 연합에도 콘세르타시온에도 속하지 않는 제3후보 마르코 엔리케스 오미나미가 돌풍을 일으켰다. ‘칠레를 위한 누에바 마요리아’(Nueva Mayoría para Chile)라는 선거연대를 구축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무소속 후보로 나서서 20.13%를 득표한 것이다. 비록 3위에 그치기는 했지만 피네라를 내세운 우파 연합과 프레이를 내세운 콘세르타시온 양강 체제에 균열을 낸 사건이었다. 그다음 2013년 대선에서 바첼레트가 다시 입후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콘세르타시온은 누에바 마요리아라는 업그레이드판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아직 바첼레트의 인기가 높을 때지만, 2009-2010 대선에서 우파에게 패배한 충격과 엔리케스 오미나미 같은 무소속 돌풍의 기억 때문에 나름대로는 쇄신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 대선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누에바 마요리아는 해체되어 기독교민주당은 아예 독자 후보 카롤리나 고이치(Carolina Goic)를 냈고, 콘세르타시온과 누에바 마요리아의 또 다른 대주주였던 사회당은 다른 군소 정당들과 함께 알레한드로 기이에르를 후보로 내세웠다. 그리고 1차 대선에서 이 두 후보는 각각 5.88%와 22.7%를 득표하는데 그쳤고, 피네라의 득표율은 36.64%로 2009년 대선 1차 선거 때의 44.06%를 밀돌았다. 대신 ‘광역전선’(Frente Amplio)이라는 새로운 선거연합의 후보 베아트리스

산체스가 20.27%를 득표했다. 콘세르타시온과 누에바 마요리아의 해체와 패배, 그리고 ‘광역전선’의 의미 있는 약진은 90체제의 정치 지형도였던 칠레 정치의 양강 구도가 확실히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광역전선’은 엔리케스 오미나미의 ‘칠레를 위한 누에바 마요리아’와 비슷한 수준의 득표에 그쳤다. 하지만, 2011년의 학생시위와 사회운동들의 정신을 계승하리라는 점을 선명하게 표방한 선거연합체였다는 점에서 ‘칠레가 깨어났다’라는 2019년의 구호를 예비하고 있었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또 2011년에 대규모 시위로 악몽 같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네라는 재집권 성공에 취해 있었다.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이미 무임승차 행위가 시작되었고 일찍 일어나면 된다는 경제부 장관의 실언이 전날 있었지만, 10월 8일 TV 채널 메가(Mega)의 무초 구스토(Mucho Gusto)라는 아침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그의 태도는 위기감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칠레는 페루나 에콰도르 등 정치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타 인근 국가들과는 달리 라틴아메리카의 오아시스 같은 나라라고 단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불과 열흘 뒤에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을 때, 시위대는 정부와 피네라만 비판하지 않고, 정치권 전체를 비판했다. 그래서 역사학자 가브리엘 살라사르는 “이번에는 적이 정치권이다. 사람들은 우파든 좌파든 중도파든 원하지 않는다”(Salazar 2019)고 단언했다. 2006년부터, 적어도 2011년부터 주기적으로 ‘불편함’이라는 정서가 대규모로 표출되었건만 그 어느 정치 집단도 국민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위대는 급기야 전면적인 개헌을 요구했다. 그리고 정치권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했다. 이미 10월 19일에 개헌 수용 검토를 시작하고, 11월 13일에 논의를 공식화하고, 11월 15일에 국회가 개헌을 천명하고, 개헌안이 12월 6일 국회로 넘어가고,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개헌안을 완성시켜 12월 24일 공표하고,

2020년 4월 26일 국민투표 실시를 결정했다.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개헌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다만 국민투표는 코로나19로 10월로 연기되었다.

이 신속한 대응을 두고 정치권을 칭찬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다고 볼 수 없다. 2019년 시위의 주요 특징은 구체적인 요구가 없었다는 점이다. 가령, 그때까지 90체제에서 가장 큰 시위였던 2011년 시위 때만 해도 주요 이슈는 교육개혁이었고, ‘무상’(gratuidad)과 ‘이윤 노’(No al lucro)라는 구호가 주축을 이루었다. 각각 무상 교육과 칠레 사회에 만연된 경제적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이었다(Mayol 2019b, location 798). 반면, 2019년 시위의 주요 구호인 ‘회피하라’와 ‘칠레가 깨어났다’에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 대신 전면적인 개헌 요구를 했다. 시위대는 이를테면 ‘이제 나라냐’를 외친 셈이다. ‘깨어난 칠레’는 낡은 90체제에 안주한 정치권 전체를 아예 탄핵해버린 것이고, 정치인들은 그 뜻을 받드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을 뿐이다.

피노체트의 유령을 향한 팔뚝질

2019년 칠레 시위 뉴스는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접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뉴스는 산티아고의 한 광장에서 시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케스트라가 <단결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리>를 연주했고, 이에 시민들이 열렬히 호응했다는 기사였다. 기사에 따르면, “일부 시민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 팔을 뻗는가 하면 일부는 국기를 흔들기도 했다. 약 3분 동안의 연주가 끝난 후에는 시민들은 물론 연주자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한국일보 2019).

이 기사에 관심이 간 까닭은 <단결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리>가 살바도르 아옌데의 인민연합(Unidad Popular)의 상징적 노래였기 때문이다. 1973년

클래식 작곡가 세르히오 오르테가가 만든 곡으로 인민연합 시대는 물론이고 민주화 과정에서의 각종 집회 때마다 어김없이 울려 퍼졌다. “일어나 노래하세요 우리 승리하리라”라는 첫 구절이 시작되면 청중은 기립하여 힘찬 팔뚝질과 함께 노래하는 것이 당시의 풍경이었다. 민주화 이후 이 풍경을 대정부 야외 집회에서 볼 수 있는 빈도는 당연히 낮아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문화유산이자 역사 기억의 일부 성격으로 전승되었다(McSherry 2015, xviii). 그랬건만 2019년 그 풍경이 또다시 강력한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부활한 것이다. 그 부활은 이미 2011년에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는 태어나지조차 않았던 수만 명의 젊은 학생이 2011년 양질의 무상 공교육을 요구하는 여러 차례 대규모 행진에서 인민연합 찬가인 〈단결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리〉를 노래”(McSherry 2015, 189)한 것이다.

그 힘찬 팔뚝질이 아옌데의 인민연합 시대로의 회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 그것은 이미 1989년 대선의 암묵적 함의였다. 당시 콘세르타시온은 ‘칠레, 기쁨이 벌써 온다(Chile, la alegría ya viene)’를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쿠데타와 군부독재를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가능한 한 삼갔다. 피노체트와 군부를 자극했다가 어렵게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가 어그러질지도 모른다는 야권 정치인들의 우려가 1차적인 요인이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칠레 국민이 인민연합 시대로의 회귀를 전반적으로 원하지 않았다. 과거의 아옌데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의 사회주의 실험이 너무 이상적 혹은 급진적이었다고 생각을 바꾸게 된 이들이 상당히 있었고, 무엇보다도 아옌데 체제가 난파하면서 피바다에서 허우적댄 기억이 트라우마로 작동했다.

그렇다고 그 팔뚝질이 민주화 투쟁 때처럼 피노체트를 향한 것도 아니었다. 피노체트는 퇴임 안전판을 확실히 마련해 놓고 정권을 이양한지라 민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위세가 대단했고, 그러다보니 이따금 규탄 시위에서 그를 겨냥

하여 <단결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리>를 부르면서 힘찬 팔뚝질을 하는 광경이 벌어지기는 했다. 하지만 피노체트가 1998년 런던을 방문했다가 인권침해 혐의로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위세가 꺾이고 2006년 사망한 후에는 그런 광경을 볼 일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2011년과 2019년의 팔뚝질은 피노체트의 유령, 즉 그가 남긴 경제적·사회문화적 유산을 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경제적 유산은 바로 칠레 모델, 즉 신자유주의 모델을 말한다. 주지하다시피 피노체트는 쿠데타 직후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의 멘토 밀턴 프리드먼의 조언을 수용했고, 프리드먼을 추종한 일단의 칠레 경제학자들(소위 시카고 보이즈)을 기용하여 경제의 틀을 짰고, 이 틀이 90체제에도 계속되었다. 피노체트는 1990년 정권을 넘기고, 1998년부터 권력을 잃고, 2006년 사망했지만 그의 유령은 90체제에서 계속 출몰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교육 문제가 2001, 2006, 2011년 연속해서 전 국민적 이슈가 되고, 칠레를 깨어나게 만든 것도 피노체트의 유령 때문이다. 그가 교육 부문에서도 프리드먼의 조언대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자유경쟁 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1981년 입안한 대학 교육 정책이 오늘날의 칠레 대학생들이 겪는 끔찍한 등록금 문제의 원흉이 되었고(우석균 2012, 141-42), 콘세르타시온의 파트리시오 아일윈이 취임하기 바로 전날인 1990년 3월 10일에는 초·중등 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크게 제약하는 교육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신자유주의 교육 체제를 지속시키는 대못을 박았다(라고스 2012, 203-4).

필자가 예전 글에서 다루었지만(우석균 2010) 피노체트가 남긴 유산 중에서 더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것은 사회문화적 변화였다.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의 대대적인 공습은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피노체트 시대의 사회문화적 변화는 1960년대에서 아옌데 시절까지의 정치적 급진화, 심지어 여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좌파 혁명보다도 훨씬 더 급격한 것이었다. 피노

체트에서 아일원으로서의 권력 이양도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아니라 국가 독재에서 시장 독재로의 이행이었다고 평할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칠레는 소비가 미덕인 사회, 소위 '신용카드 시민'이 뉴노멀인 사회로 변신했다. 이 사회에서는 기업인을 영웅으로 떠받드는 풍조, 혹은 최소한 강렬한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풍조가 만연했다. 이를테면 '부자 되세요'라고 외쳐도 무방한 사회문화적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바로 피네라가 두 번이나 당선될 수 있었고, 첫 당선 때 "십장들은 물러나고 주인이 되 돌아온다"라는 기사 제목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이 역시 피노체트가 남긴 유산이니, 2011년과 2019년의 깨어난 칠레의 팔뚝질은 피노체트의 유령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깨어난 칠레가 탄핵한 것은 90체제만이 아니다. 피노체트의 유산을 송두리째 탄핵한 것이다. 전면적인 개헌을 요구하게 된 것도 21세기에 접어들어 지속적으로 분출된 '불편함'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권과 90체제 탄핵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지금의 헌법은 비록 금년 3월까지 무려 40차례나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피노체트 시대인 1980년 만들어져 이듬해 발효된 것을 여전히 근간으로 하고 있다. 피노체트의 유령이 떠돌아다니는 헌법인 것이고, 지금의 칠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그 유령을 완전히 황천길로 보내버리라는 것이다.

마울은 2011년의 학생시위를 보고 "칠레 모델의 붕괴"(Mayol 2013)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했고, 2019년의 시위를 보고는 "빅뱅"(Mayol 2019b)의 시작이라고 진단했다. 과연 칠레 경제 모델이 완전히 붕괴되고, 빅뱅이라고 부를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을 출현시킬 수 있을지 판단하기는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아옌데의 인민연합 찬가가 울려 퍼진 것은 아옌데 시대가 그토록 염원했던 불평등 해소가 앞으로 칠레 사회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상징적인 퍼포먼스이다. 1970년 아옌데가 당선된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

당시 그의 공약 중 가장 커다란 감성적인 호소력을 발휘한 것은 ‘모든 아이에게 하루 0.5리터의 우유를’이었다. 2019년의 시위로 피노체트의 유령이 하루아침에 탄핵되어 사라지기는 힘들겠지만, 소비를 권하고 빚을 권하는 사회 대신 최소한 이런 종류의 소박한 꿈 정도는 공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전환점은 마련되었다고 본다.

| 참고 문헌 |

그레스 토소, 세르히오(2011), 「칠레 사회운동의 새아침」, 우석균 옮김, 《트랜스라틴》 17호, 2011년 9월호, pp. 10-12, <http://snuilas.snu.ac.kr/publication/webzine?md=view&pubidx=17>.

라고스, 리카르도(2012), 『피노체트 넘어서기: 칠레 민주화 대장정』, 정진상 옮김, 삼천리.

우석균(2010), 「칠레 근대성 담론 비판」, 《중남미연구》 제29권 1호, pp. 79-96.

_____ (2012), 「칠레 학생운동과 잃어버린 30년」,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12 라틴아메리카 -정치안정과 경제회복』(연보), 이숲, pp. 135-173.

한국일보(2019), 「“단결한 민중은...” 칠레 시위 현장에 울려 퍼진 노래 전 세계 화제」, 11월 4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041062377989>.

Becerra, Mauricio(2010), “Se van los capataces y vuelve el patrón”, *El Ciudadano*, 18 de enero, <http://www.elciudadano.cl/2010/01/18/se-van-los-capataces-y-vuelve-el-patron/>.

Durán, Gonzalo y Marco Kremerman(2019), “Los verdaderos sueldos de Chile: Panorama Actual del valor de la fuerza de trabajo usando la ESI 2018”, informe, <http://www.fundacionsol.cl/wp-content/uploads/2019/08/Los-Verdaderos-Salarios-ESI-2018-1.pdf>.

Lawrence, Tomás(2019), “El despertar de Chile: Radiografía de un movimiento social espontáneo en contra del modelo neoliberal”, *Revista Castalia*, No. 33, pp. 89-103.

Mayol, Alberto(2013), *El derrumbe del modelo: La crisis de la economía de mercado en el Chile contemporáneo*, 2a ed., Santiago: LOM ediciones.

_____ (2019a), “8 años de crisis ¿y qué dicen los negadores del derrumbe?: Vergüenza de las ciencias sociales en Chile”, *Nodal*, 22 de noviembre, <https://www.nodal.am/2019/11/8-anos-de-crisis-y-que-dicen-los-negadores-del-derrumbe-vergüenza-de-las-ciencias-sociales-en-chile-por-alberto-mayol/>.

_____ (2019b), *Big Bang: Estallido social 2019. Modelo derrumbado*—Sociedad rota—Política inútil, Kindle Edition, Santiago: Catalonia.

McSherry, J. Patrice(2015), *Chilean New Song: The Political Power of Music, 1960s-1973*,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PNUD(1998), *El Informe de Desarrollo Humano en Chile 1998*, http://www.undp.org/content/dam/chile/docs/desarrollohumano/undp_cl_idh_informe1998.pdf.

Salazar, Gabriel(2019), “Esta vez el enemigo es la clase política; la gente no quiere nada ni con la derecha, ni con la izquierda ni con el centro”, entrevista, *The Clinic*, 11 de noviembre, <https://www.theclinic.cl/2019/11/11/gabriel-salazar-esta-vez-el-enemigo-es-la-clase-politica-la-gente-no-quiere-nada-ni-con-la-derecha-ni-con-la-izquierda-ni-con-el-centro/>.